

이 보고서는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기술분석보고서

 YouTube 요약 영상 보러가기

# 경남스틸(039240)

## 소재

요약  
기업현황  
시장동향  
기술분석  
재무분석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작성기관

한국기업데이터(주)

작성자

양기보 전문위원

- 본 보고서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후원을 받아 한국IR협의회가 기술신용평가기관에 발주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영상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게재 상태일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한국기업데이터(주)(TEL.02-3215-275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남스틸(039240)

철강재 가공의 선두주자 경남 최대의 (주)포스코 가공센터 기업

## 기업정보(2020/11/17 기준)

대표자	최석우
설립일자	1990년 11월 15일
상장일자	2000년 03월 07일
기업규모	중견기업
업종분류	그 외 기타 1차 철강 제조업
주요제품	강판, 코일 등의 전단, 분단 가공

## 시세정보(2020/11/23 기준)

현재가(원)	1,880
액면가(원)	100
시가총액(억 원)	470
발행주식수(주)	25,000,000
52주 최고가(원)	2,060
52주 최저가(원)	1,005
외국인지분율	2.32
주요주주	최충경, 조수열, 최석우, 최석환, 우연주, 강희진

### ■ 냉, 열연강판 철강제품 전단, 분단 등 1차 철강 제조업 영위

경남스틸 주식회사(이하 ‘동사’)는 1990년 11월 코일 절단 가공 등을 목적으로 삼현강업(주)로 설립된 후, 곧바로 (주)포스코 냉연코일센터로 지정되었으며, 1995년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2000년 3월 (주)포스코 협력업체 중 최초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으며, 다양한 형태의 강판(냉연강판, 산세도유강판, 아연도금강판)을 공급받아 산업별, 용도별로 손쉽게 사용될 수 있도록 1차적인 가공 작업을 실시하게 되는 데, 동사의 경우 레벨러, 전단기, 언코일러 등 모두 연결 및 자동화되어 있어 치수 정밀도와 평탄도 확보는 물론, 버(BURR)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웅남 사업장과 광양 사업장에서 최대 1,850mm의 폭을 갖는 강판을 연간 약 75만 톤 연속 절단할 수 있는 설비 및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 ■ 강판, 코일 등의 전단 및 분단 가공 기술 보유

동사는 생산성 향상, 납기 충족을 위한 수시적인 공정개선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생산총괄책임자는 주력제품인 산세도유강판, 냉연강판, 아연도금강판의 가공과 관련된 공정관리, 설비관리는 물론, 원자재의 입고, 생산현황, 재고현황 등을 수시로 파악하고 있으며, 생산이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최적화된 조업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유관기관 대응 업무를 비롯하여 생산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총괄하면서 거래처에 대한 납기가 준수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 ■ 생산능력 확대를 통한 성장 도약 및 철강 수요에 따른 성장세 기대

동사는 전년 대비 상향한 가동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고객사 전담제를 운영하여 각 담당자가 고객사별 수요량을 맞춘 생산지시서를 운용하고 있으며, 고객사의 일정에 맞는 긴급 발주 분을 최우선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COVID-19)에 따른 세계 각국의 봉쇄조치 해제 및 경제 정상화 등에 힘입어 2021년에는 철강 수요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보여 향후 동사의 매출실적 증가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 요약 투자지표 (K-IFRS 개별 기준)

구분 년	매출액 (억 원)	증감 (%)	영업이익 (억 원)	이익률 (%)	순이익 (억 원)	이익률 (%)	ROE (%)	ROA (%)	부채비율 (%)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2017	2,870	8.08	66	2.29	43	1.48	5.38	3.05	82.70	170	3,242	11.70	0.61
2018	2,749	-4.19	63	2.28	54	1.96	6.49	3.71	67.72	215	3,380	9.28	0.59
2019	3,182	15.74	61	1.91	46	1.46	5.40	3.27	62.79	186	3,487	9.62	0.51

## 기업경쟁력

### 기술경쟁력

- 웅남, 광양 사업장내 최대 1,850mm의 폭의 강판 전단, 분단 가공이 가능한 설비라인 구축
- 레벨러, 전단기, 언코일러 등의 자동화 설비라인 구축으로 치수 정밀도와 평탄도 확보 및 버(BURR)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

### 주요사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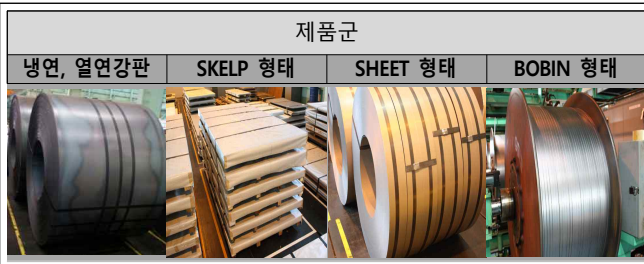
- (주)포스코의 열연강판 가공센터
- 냉연강판, 산세도유강판, 아연도금강판, 열연강판 등 용도별, 특성별로 제품 가공, 유통

## 핵심기술 및 적용제품

### 핵심기술

- 철강 판재류 1차 가공을 위한 전단 가공 기술
  - 레벨러, 전단기, 언코일러 등이 모두 연결 및 자동화되어 있어 치수 정밀도와 평탄도 확보는 물론, 깔끔한 전단면 확보 가능
- 특정 재료용 가대의 폭 절단을 위한 분단 가공기술
  - 롤러 이동을 통한 회전커터 식 절단 및 권취를 진행하고, 루퍼를 통한 권취 이전 당김 현상을 방지하여 폭이 절단된 강판 각각에 대해 길이 편차와 이동속도 편차를 제거

### 적용 제품



### 매출비중

- 제품군별 매출 비중 (2020년 반기 기준, 단위: 백만 원)

제품군	매출액	비중
냉연강판	23,090	17.99%
전기아연 도금강판	2,488	1.94%
산세코일	31,856	24.82%
용융아연 도금강판	7,868	6.13%
열연아연 도금강판	3,998	3.12%
합금화아연 도금강판	4,242	3.31%
용융알루미늄아연 도금강판	34	0.03%
열연코일	4,688	3.65%
고내식합금 도금강판	1,049	0.82%
상품(냉연 및 기타)	47,967	37.7%
기타(임가공, 임대)	1,064	0.83%
총 합계	128,344	100%

## 시장경쟁력

### 국내 주요 기업(전방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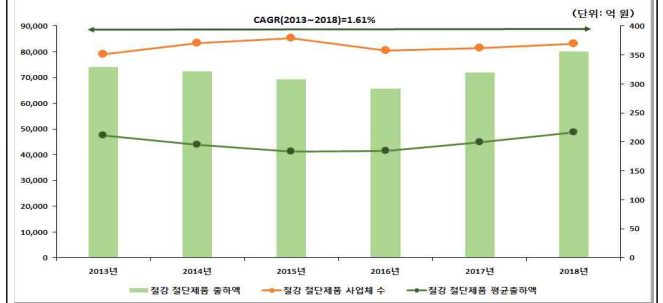
- 2019년 기준 (주)포스코는 세계 5위의 철강사

순위	업체	국가
1	아르셀로미탈	룩셈부르크
2	바오우그룹	중국
3	일본제철	일본
4	HBIS그룹	중국
5	포스코	한국

### 국내 시장규모(철강 절단제품)

연도	시장규모(단위: 억 원)	성장률
2013년	74,059	연평균 ▲1.61%('13~'18) (출처: 통계청)
2015년	69,243	
2018년	80,233	

### 국내 시장규모 그래프



## 최근 변동사항

### 생산능력 강화를 통한 기술역량 강화

- 광양 제2공장 추가 증축
- 공구, 기구, 기계장치 추가 구입을 통한 가동능력 증가

### 향후 전망

- 철광석 시세는 최근 5년간 변동성을 보이고 있지만, 추세적으로는 고점을 갱신 중으로 사업실적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

## I. 기업현황

### 최신 설비를 통한 냉, 열연강판 철강제품 전단, 분단 가공 공급 기업

동사는 1차 형태로 가공한 각종 철강재를 산업 전반에 공급하고 있는 (주)포스코의 냉연강판 판매점으로 지정되면서 국내 철강재 공급의 일익을 담당해왔으며, 광양에 공장을 두어 저렴한 물류비로 신속한 공급을 진행하고 있는 철강재 전문 가공업체이다.

#### ■ 개요

경남스틸 주식회사(이하 ‘동사’)는 1990년 11월 코일 절단 가공 등을 목적으로 삼현강업(주)로 설립된 후, 곧바로 (주)포스코 냉연코일센터로 지정되었으며, 1995년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2000년 3월 (주)포스코 협력업체 중 최초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으며, 2005년 창원 웅남 공장 준공에 이어 2011년 광양 1공장, 2018년 광양 2공장을 준공하여 사업 범위를 확장하였다.

동사는 냉연코일에서 아연도금강판 및 열연강판 등으로 취급 제품을 확대하였으며, (주)포스코 가공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객관적이고 공개적이며 투명한 경영을 펼쳐, 고객사에게 자재, 시간, 정소, 기회손실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실수요 규격용도의 제품 가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분석기준일 현재 상시종업원 86명의 임직원들이 근무 중에 있다.

[그림 1] 기업이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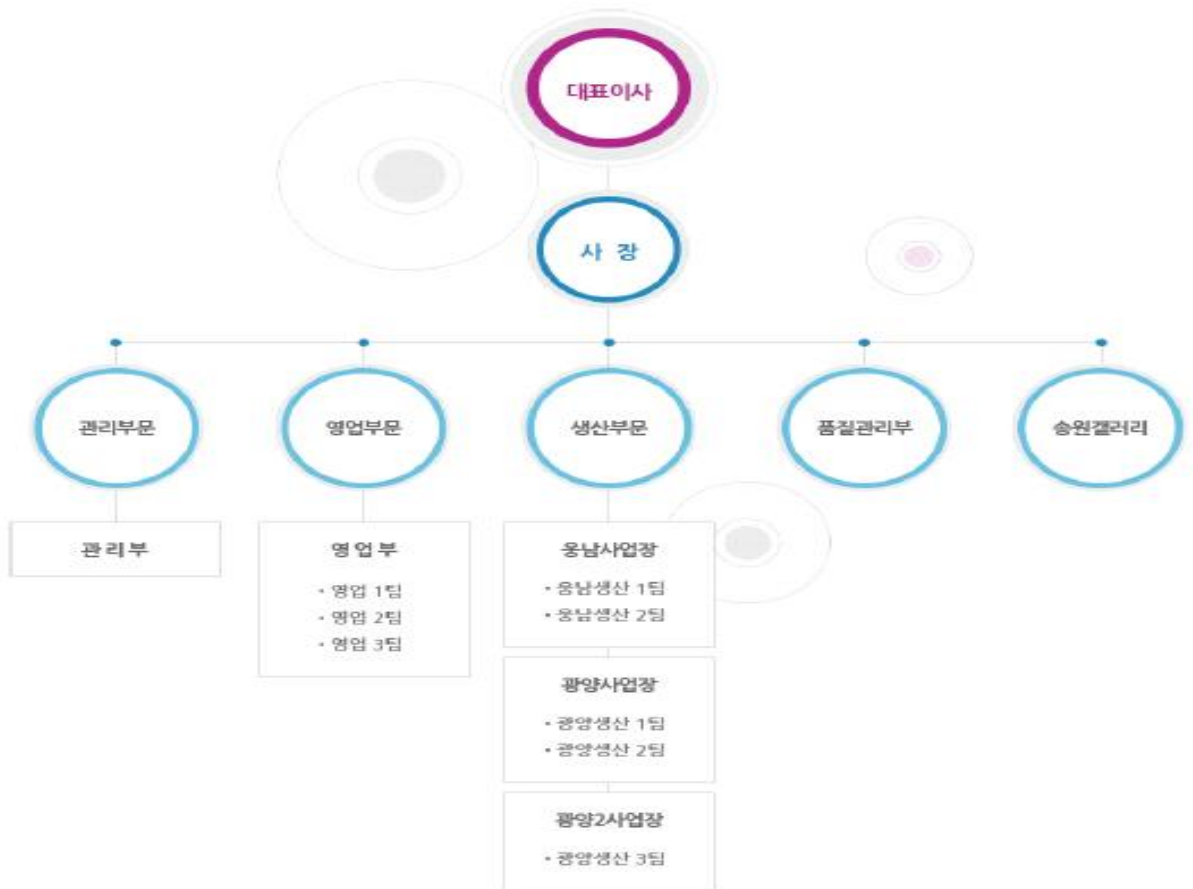
\*출처: 경남스틸

## ■ 조직구성

동사는 조직은 크게 5개의 부문 사업부(관리부문, 영업부문, 생산부문, 품질관리부문, 송원캘러리)를 두고 있으며, 부서별로 경영 관리, 영업 관리, 생산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송원 캘러리는 창사 22주년을 기념으로 사옥 5층에 마련된 문화 예술의 전당이다.

또한, 영업부문은 영업 1~3팀을, 생산부문은 웅남 1~2팀, 광양 1~3팀을 총괄하는 등 사업별로 전담 임원이 총괄을 하고 있어 상호간의 신뢰와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고, 분야별 전문가를 배치하여 이를 기반으로 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진행하고 있다.

[그림 2] 조직도



\*출처: 경남스틸

\* 냉연강판(CR, COLD ROLLED STEEL) : 냉간압연강판의 줄임말로, 열연강판을 산세 공정으로 화학 처리하여 표면의 산화피막을 제거한 뒤, 상온에서 압연 처리한 강판, 표면이 미려하고 평활하며 가공성이 우수하고, 자동차, 가전제품, 건축자재 등의 용도로 사용됨.

\* 열연강판(HR, HOT ROLLED STEEL) : 열간압연강판의 줄임말로, 쇳물을 가공한 판재 형태의 철강 반제품을 재결정 온도 이상의 고온으로 가열한 뒤, 롤 사이로 소재를 통과시켜 재료의 두께를 감소시키는 압연공정을 거친 강판이며, 표면이 거칠고 두께 조절이 가능하여 큰 구조물이나 대형 파이프용으로 사용됨.



## ■ 주요주주

별도의 계열회사나 관계회사가 없이 동사만을 운영 중이며, 회장이자 최대주주인 최충경의 보유 지분(18.95%)과 가족 및 특수 관계자인 최석우, 최석환, 강희진, 우연주, 조수열의 지분을 합하면 47.49%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자본가와 경영자가 일치하면서도 경영자로서 전체 조직을 운영하는 형태의 지배주주 경영체제를 오랜 기간 동안 지속하고 있어 지배구조는 안정적인 수준으로 판단된다.

[표 1] 주요주주 및 관계회사 현황

주주	소유주식수(천 주)	지분율(%)	비고
최충경	4,737	18.95	최대주주, 본인
조수열	100	0.40	배우자
최석우	4,250	17.00	자
최석환	1,250	5.14	자
우연주	750	3.00	자부
강희진	750	3.00	자부
기타 및 소액주주	13,163	52.51	
합계	25,000	100.00	

\*출처: 경남스틸, 2020년 반기보고서

## ■ 대표이사 인적사항

회장 최충경(1946년생, 남)은 영남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한 후, 창원대학교 노동정책대학원에서 경영학 노사관계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삼성전자(주)에서 기획, 영업과장을 역임한 뒤, 동업계 업체인 삼현철강(주)에서 부사장을 지냈다. 1992년 동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고, 경남장애인재활협회장, 귀남 장학회장, 창원상공회의소 회장, 창원대학교 명예총장을 역임하는 등 활발한 대외활동을 펼쳐 왔다.

철강업계에서 약 3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어 철강 산업과 관련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은 수준이며,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과 대외활동을 펼치면서도 동사를 (주)포스코의 대표 협력업체, 철강재 전문 업체로 성장시킨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술경영, 사업화 및 기업가정신 모두 우수한 수준의 경영인으로 판단된다.

## ■ 주요 기술역량

1차 철강 제조업은 각종 철강재(분, 괴, 판, 봉, 관 등) 및 표면 처리된 철강재를 생산하는 산업 활동을 말하며, 이 중에서 표면처리와 절단가공 분야는 기타 분야로 구분되어 있다. 달리 분류되지 않는 철강재 중에서도 특정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중간재 상태의 제품과 절단제품이 그 외 기타 1차 철강 제조업에 속하며, 동사의 산업 활동과 정확히 일치한다. 여기서 말하는 1차의 의미는 소재로 사용하기 전 기본적인 가공을 진행한 제품 또는 특정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적인 소재를 말하며, 1차적으로 사용된 이후 2차, 3차에 걸쳐 추가적인 가공이 진행될 수 있다.

동사는 (주)포스코 가공센터로, 다양한 형태의 강판(냉연강판, 산세도유강판, 아연도금강판)을 공급받아 산업별, 용도별로 손쉽게 사용될 수 있도록 1차적인 가공 작업을 실시하게 되는 데, 이에 해당하는 전단(SHEARING) 또는 분단(SLITTING)이 동사의 핵심기술이다. 동사는 전단의 버(BURR) 발생 최소화, 치수 정밀도 및 평탄도 확보 등으로, 설비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며, 동사의 경우 레벨러, 전단기, 언코일러 등 모두 연결 및 자동화되어 있어 치수 정밀도와 평탄도 확보는 물론, 버(BURR)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웅남 사업장과 광양 사업장에서 최대 1,850mm의 폭을 갖는 강판을 연간 약 75만 톤 연속 절단할 수 있는 설비 및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 ■ 사업현황 및 주요 제품

동사는 냉연강판, 산세도유강판, 아연도금강판, 열연강판 등 용도별, 특성별로 제품을 취급하고 있으며, 자동차 및 가전제품 등으로 적용되는 제품 특성상 후판과 박판을 다양한 형태로 판매하고 있다. 동사가 취급하고 있는 냉연강판은 표면이 미려하고 가공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고급 철강재로서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정용품, 산업기기 및 각종 전자재에 이르기까지 산업 전반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전기아연도금강판은 도장 마무리성, 도장 후 내식성이 우수하여 가전기기, 자동차 부문에 적용되는 등 건축 내장재와 금속가구의 소재로 각광받고 있다.

또한, 산세도유강판은 열연강판을 산세 처리한 제품으로 도장성, 내식성, 표면상태, 형상제어 가공성을 보완하여 전자재, 자동차부품, 전기 및 전자부품, 일반기계 등에 적용되고, 용융아연도금강판은 내식성이 뛰어난 뿐 아니라 성형성, 용접성, 도장성이 매우 우수하여 토목, 건축 및 자동차, 산업설비 등 여러 산업분야로 적용되고 있으며, 열연아연도금강판은 모체금속의 선택을 통해 가공원가 절감과 도금처리를 통한 내식성 강화요소를 겸비한 경제성 강판으로 일반 건축자재, 농원용 파이프, 도로용 가드 레일에 적용되고 있다.

[그림 3] 주요 제품



\*출처: 경남스틸

합금화아연도금강판은 소재판과 아연이 열에 의해 확산되어 합금화된 도금 층이 형성된 제품으로, 용접성 및 도장성이 우수하고 내식성이 우수하여 자동차 외판으로 사용된다. 용융알루미늄아연도금강판은 용융아연도금강판의 내식성과 표면 미려 확보를 위해 알루미늄과 아연을 혼합하여 도금한 강판으로, 동일한 도금 두께의 아연도금강판과 비교하여 내구성이 3~6배 우수하며, 가전제품 외판 및 조선용 내장재로 사용된다. 열연강판은 비교적 두꺼운 열간압연강판으로, 주로 후판이 많으며, 선박, 교량, 산업기계, 건축, 해양구조물 제작 등에 적용되고, 고내식합금도금 강판은 동일한 도금 부착량의 일반 용융아연도금강판 대비 5~10배 이상의 내식성을 보유한 제품으로 특히 절단면의 내식성이 매우 우수하여 후 도금 제품의 대체가 가능한 강판이다.

### ■ 매출 비중

사업부문은 제조(철강 매출), 판매(상품 매출), 임가공(기타 매출)로 구분되어 있는데, 철강 매출은 (주)포스코로부터 주요 원자재인 냉연강판, 산세도유강판, 아연도금강판 등을 구입하여 소정의 크기와 폭을 갖도록 전단(SHEARING) 또는 분단(SLITTING) 가공한 후 거래처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매출이고, 상품매출은 (주)포스코로부터의 구입한 철강재를 별도의 가공작업 없이 거래처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매출이며, 가공매출은 거래처가 구매한 자재를 전단 또는 분단 가공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매출이다.

2019년 반기 기준 매출액 128,344백만 원으로, 제품 61.80%, 상품 37.37%, 기타 0.83%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품 분류별로 다양한 형태의 냉연 및 열연강판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제품은 자동차 내판 및 구조용, 건축자재용 등으로 사용되는 산세도유강판으로, 2020년 반기 기준 24.82%를 차지하고 있으며, 냉연강판이 17.99%, 용융아연도금강판이 6.13%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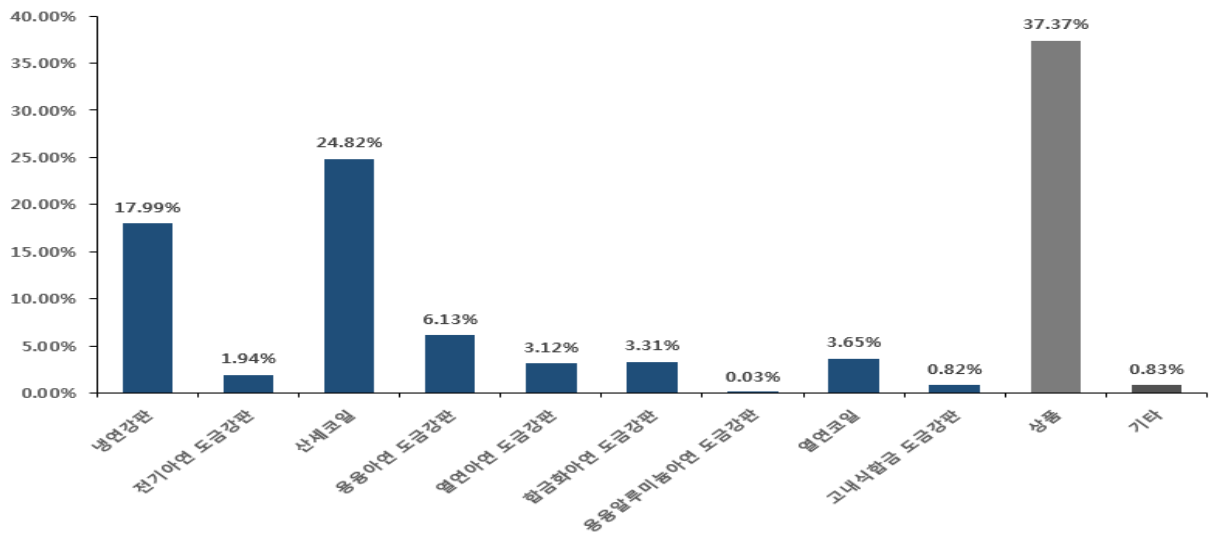


[표 2] 사업부분별 매출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반기
제품	185,45	196,782	196,425	201,742	79,313
상품	78,200	88,014	75,981	114,028	47,967
기타	1,904	2,185	2,540	2,441	1,064
합계	265,519	286,981	274,946	318,211	128,344

\*출처: 경남스틸, 사업보고서(2016~2019), 2020년 반기보고서

그림 4. 2020년 반기 기준 제품별 매출비중



\*출처: 경남스틸, 한국기업데이터(주) 재가공

## Ⅱ. 시장 동향

### 글로벌 경제정상화 및 경기부양으로 인한 철강 산업 성장세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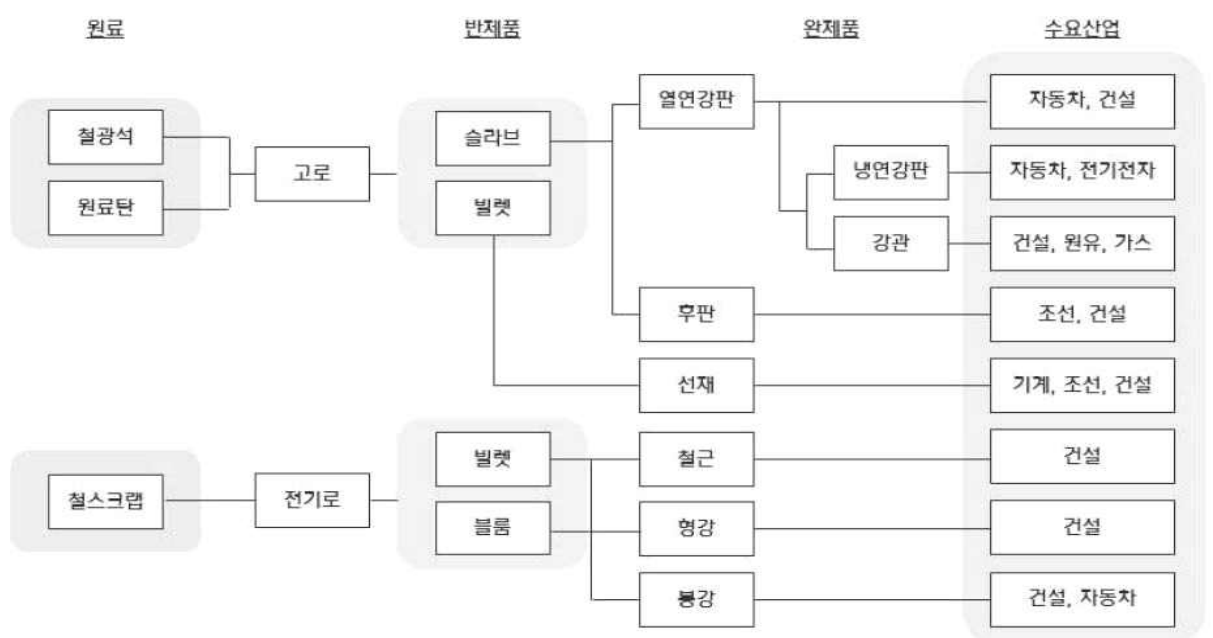
철강 산업은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건설, 자동차 및 전자 등 전방산업 생산 중단에 따른 철강수요 감소로 제품 가격 약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최근 중국을 중심으로 공장가동이 이루어지면서 철강 산업이 진정되고 있는 상황으로, 하반기 글로벌 경제정상화 및 경기부양으로 인해 2021년에는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 철강 산업의 특징

철강 산업은 자동차, 조선, 기계, 건설 및 방위산업을 비롯한 전 산업에 기초 소재를 공급하는 산업으로, 원자재(철광석, 철 스크랩 등)를 이용하여 붕, 형강, 판재, 강관 등의 철강제품을 생산하는 산업 활동을 의미하며, 제철 및 제강업, 철강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철강관 제조업, 표면처리 및 절단제품 제조업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철광석과 유연탄 모두 수입 의존도가 높아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원재료 확보가 원활하지 못하게 되며, 동사를 비롯한 전체 철강업체의 사업실적은 원재료의 시세와 공급 변동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철강 산업의 공급망은 사용하는 원재료와 노(FURNACE 스크랩은 전기로)에 따라 공급 망이 달리 구성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제철소 → (서비스센터) → 각 산업 군으로 구성되며, 우리나라의 경우 고로를 보유한 (주)포스코와 현대제철(주), 전기로를 보유한 동부제철(주), 동국제강(주), 한국철강(주) 등으로부터 강판, 형강, 봉강, 선재 등이 공급되고 있다.

[그림 5] 철강 산업 계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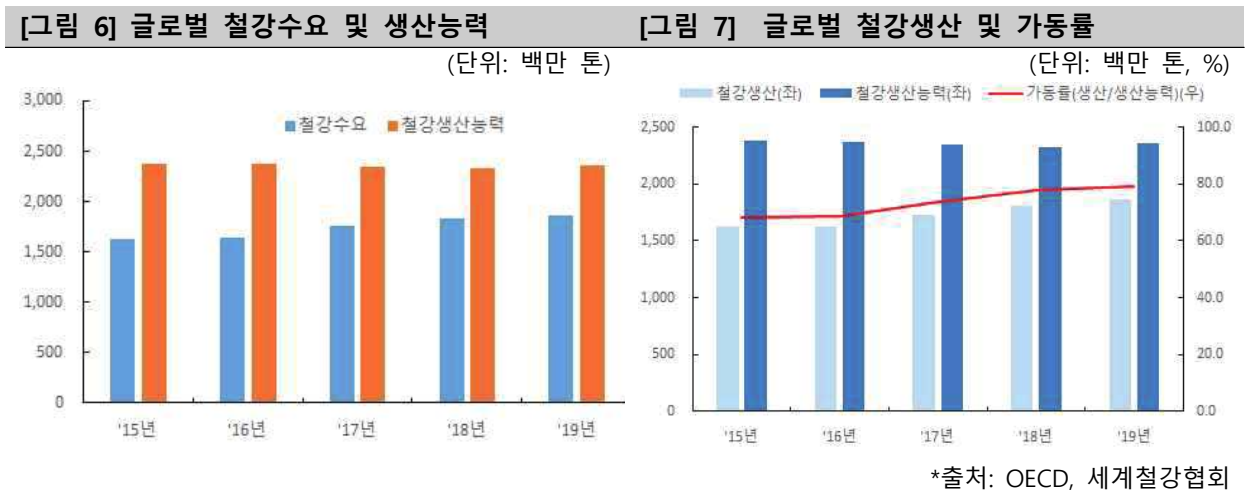
\*출처: KDB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 산은조사월보 제777호(2020년 8월)

철강 산업은 대규모 자본집약적 장치산업으로, 생산규모가 확대될수록 비용이 감소하는 규모의 경제가 큰 산업이며, 원자재 산업, 에너지 산업, 건설업 등의 후방산업과 자동차, 조선, 기계, 가전 등의 전방산업 사이에서 기초 소재를 제공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전후방 연관 효과가 매우 높은 산업이다. 제선, 제강, 연속주조 등 핵심 공정기술의 활용에 따라 주도권이 바뀔 수 있는 산업으로, 공정기술 혁신이 조업도 향상, 생산 공정의 단축, 생산 고도화의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 산업이다.

### ■ 세계 철강 산업의 동향

세계 철강 산업은 수요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중국 경제가 고성장하는 동안 철강 산업도 동반 성장하였으나, 개도국 설비 확장에 따른 공급과잉 등이 겹치면서 구조적으로 성장정체 국면에 진입하였다. 선진국 및 중국의 설비 감축에도 불구하고 개도국(중국 제외)들의 공격적인 설비 확장 영향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 가동률은 73.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초과생산능력 규모는 연평균 6.2억 톤).

수요정체 및 공급과잉 등의 영향으로 글로벌 철강 설비투자 증가세는 점차 둔화되고 있으며, 글로벌 철강 생산능력은 전 세계적인 철강설비 감축 추진에 따른 2015년 이후의 감소세에서 벗어나 2019년부터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공급과잉이 여전히 지속되는 가운데 세계경기 침체와 코로나19(COVID-19)에 따른 수요부진 등의 영향으로 2020년을 정점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중동·아프리카 등 개도국(중국 제외)들이 생산능력 증가를 주도하고 있으며, 유럽·북미 등 선진국의 생산능력 증가 규모는 소폭에 그치고 있다.



한편, 글로벌 철강 업체들은 시장지배력 강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전 세계 조강생산량 중 글로벌 상위 5개 철강업체 비중은 2010년 16.5%에서 2019년 17.9%로 확대되었으며, 아르셀로미탈(룩셈부르크)은 부동의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의 바오우 그룹은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였고 HBIS그룹은 연간 46.6천 톤을 생산하면서 우리나라의 (주)포스코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글로벌 상위 5개 철강업체 조강생산량 변화

(단위: 천 톤)

2010년				2019년			
순위	업체	국가	생산량	순위	업체	국가	생산량
1	아르셀로미탈	룩셈부르크	98.2	1	아르셀로미탈	룩셈부르크	97.3
2	바오우스틸	중국	37.0	2	바오우그룹	중국	95.5
3	포스코	한국	35.4	3	일본제철	일본	51.7
4	일본제철	일본	35.0	4	HBIS그룹	중국	46.6
5	JFE	일본	31.1	5	포스코	한국	43.1

\*출처: 세계철강협회

### ■ 국내 철강시장 동향

우리나라의 조강 생산량은 2019년 기준 71,411천 톤으로, 2015년 69,672천 톤에서 2019년 까지 연평균 0.62% 증가하였다. 우리나라는 2019년 기준 세계 5위의 철강 생산국으로, 세계 조강 생산량의 4%를 차지하고 있으나, 코로나19(COVID-19) 등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인해 2020년 1~8월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8.7% 감소한 43,803천 톤을 기록하고 있으며, 2020년 전체 생산량도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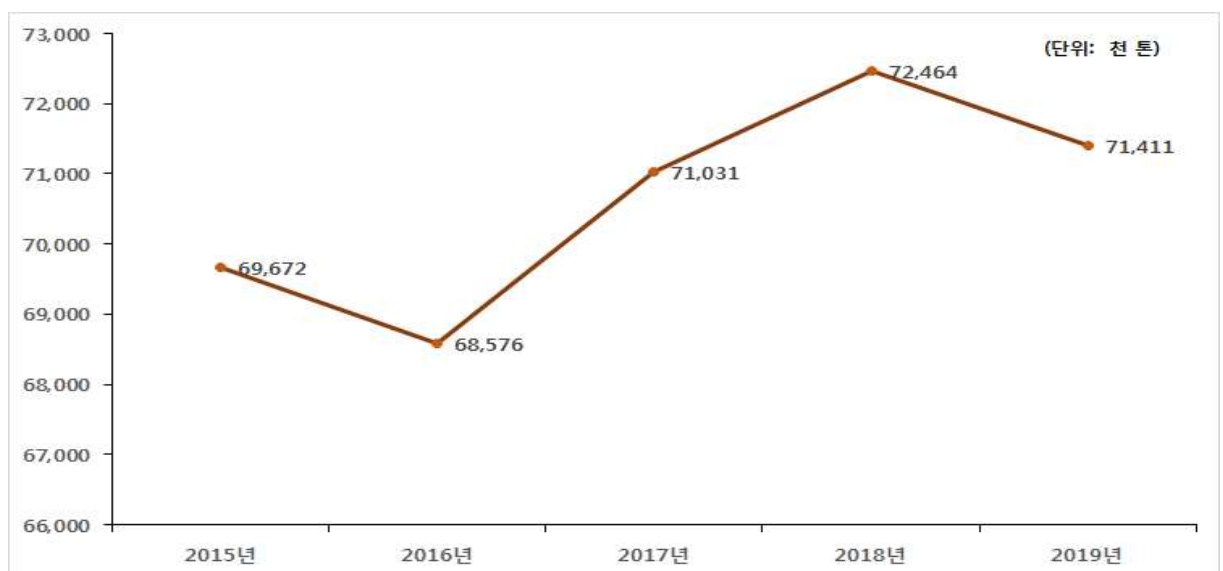
[표 4] 글로벌 상위 5개 철강업체 조강생산량 변화

(단위: 천 톤)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E)	CAGR
조강	69,672	68,576	71,031	72,464	71,411	65,705	0.62%
열연강판	17,536	17,606	16,768	16,965	17,767	16,782	0.33%

\*출처: 한국철강협회

[그림 8] 국내 연도별 조강 생산량



\*출처: 한국철강협회

동사가 주로 취급하고 있는 제품인 열연강판은 2019년 기준 17,767천 톤으로, 2015년 17,536천 톤에서 2019년까지 연평균 0.33% 증가하였다. 2020년의 경우 1월부터 8월까지의 생산량은 11,188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6.6% 감소하였으며, 2020년 전체 생산량도 조강 생산량과 마찬가지로 감소세가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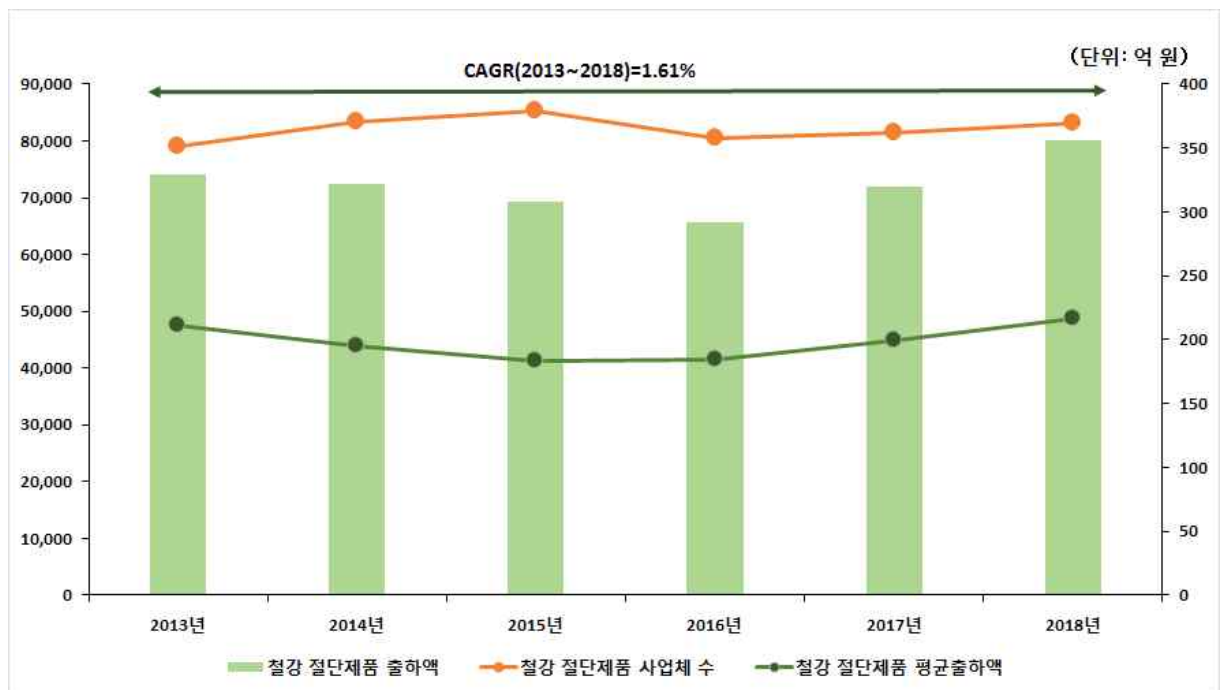
[표 5] 철강 절단제품 국내 시장규모

(단위: 억 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CAGR
철강 절단제품	출하액	74,059	72,432	69,243	65,749	71,911	80,233	1.61%
	사업체 수	351	371	379	358	362	370	1.06%
	평균출하액	211	195	183	184	199	217	0.56%

\*출처: 통계청 제조업 조사('13~'18) 자료, 한국기업데이터(주) 재구성

[그림 9] 철강 절단제품 국내 시장규모



\*출처: 통계청 제조업 조사('13~'18) 자료, 한국기업데이터(주) 재가공



### Ⅲ. 기술분석

#### 주력제품에 대한 최적화된 조업 기준으로 품질경쟁력을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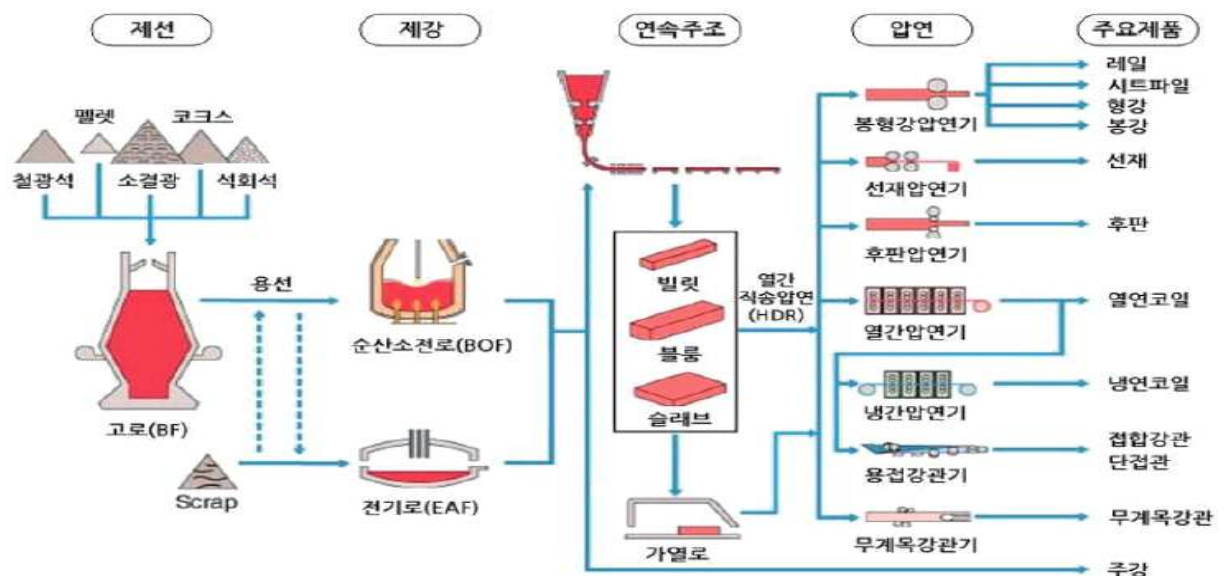
동사는 생산성 향상, 납기 충족을 위한 수시적인 공정개선 활동을 진행하고 있고, 철강 소재의 기계적 특성, 물리적 특성, 화학적 특성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기반 기술인 전단, 분단 가공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수요처가 요구하는 조건과 품질기준에 충족하는 제품을 공급하며 입지를 굳히고 있다.

#### ■ 철강의 개념 및 제조과정

철(Fe)은 대표적인 금속 원소(원자번호 26, 원자량 55.85, 비중 7.37) 중 하나로, 주요 5대 성분인 탄소(C), 규소(Si), 망간(Mn), 인(P), 황(S)을 포함하고 있으며, 탄소와 망간이 많을수록 단단해지고 부서지기 쉬운 특성을 갖고 있다. 금속 조직학에서는 탄소량이 2.11~4.5%인 것을 선철(보통 4%)로, 0.02~2.11%인 것을 강(보통 0.2%)으로 구분한다.

선철은 고로에서 철광석을 녹여서 만드는데 단단하지만 취성이 강하며, 주물로 사용되는 주물용 선철과 강을 만들기 위한 제강용 선철로 구분된다. 강은 선철을 제강로에 넣어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련하거나, 철 스크랩을 전기로에 넣은 후 성분을 조절하여 생산되는데, 강하고 질기면서 늘어나는 성질이 있어 소성가공을 통한 다양한 제품 생산이 가능하고, 니켈(Ni), 크롬(Cr), 텅스텐(W), 몰리브덴(Mo) 등을 첨가하면 내열성, 내마모성, 고장력 등의 특성을 갖는 특수강 및 합금강을 생산할 수 있다. 이러한 철강의 제조공정은 크게 제선공정, 제강공정, 연속주조공정, 압연공정과 후속공정인 제품 생산 공정으로 구분되며, 각 공정마다 세부적인 공정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림 10] 철강 생산 공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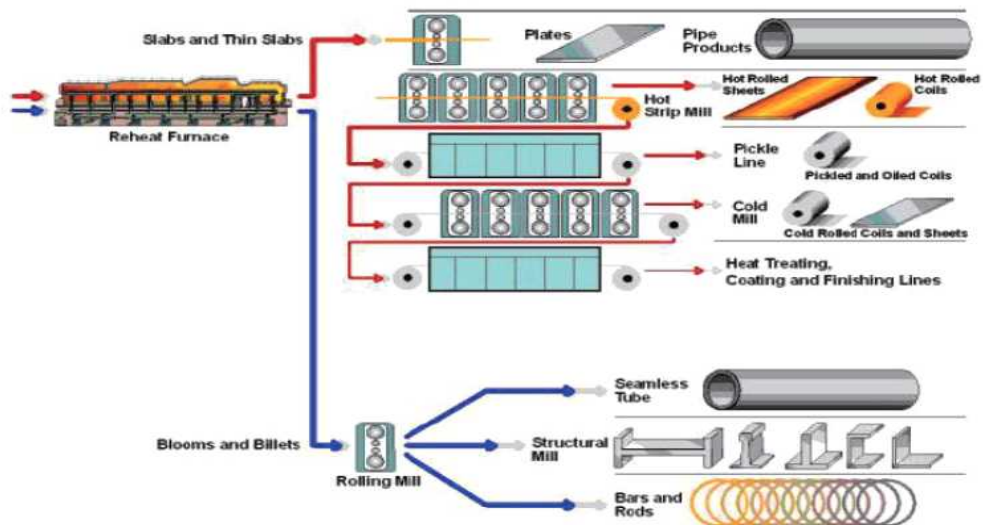


\*출처: (주)포스코

제선공정은 쇳물을 생산하는 기초공정으로, 쇳물은 고로에서 코크스의 연소 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CO)와 철광선 간 환원반응을 통해 생산되며, 온도는 약 1,500℃정도이다.

제강공정은 제선공정에서 생산된 쇳물에서 탄소의 함유량을 줄이는 한편, 인, 황 등의 불순물을 제거하여 강철로 만드는 공정이며, 연속주조공정은 액체 상태의 철을 특정 형상의 틀에 주입하여 고체 형태의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으로, 이 공정에서 철강 반제품인 슬래브, 블룸, 빌렛이 만들어진다. 한편, 압연공정은 철을 강판이나 선재로 만드는 공정으로, 각종 철강 반제품을 여러 개의 롤 사이로 통과시켜 길이를 늘이고 두께를 얇게 만드는 공정이며, 온도에 따라 열간압연과 냉간압연 공정으로 구분된다.

[그림 11] 압연 공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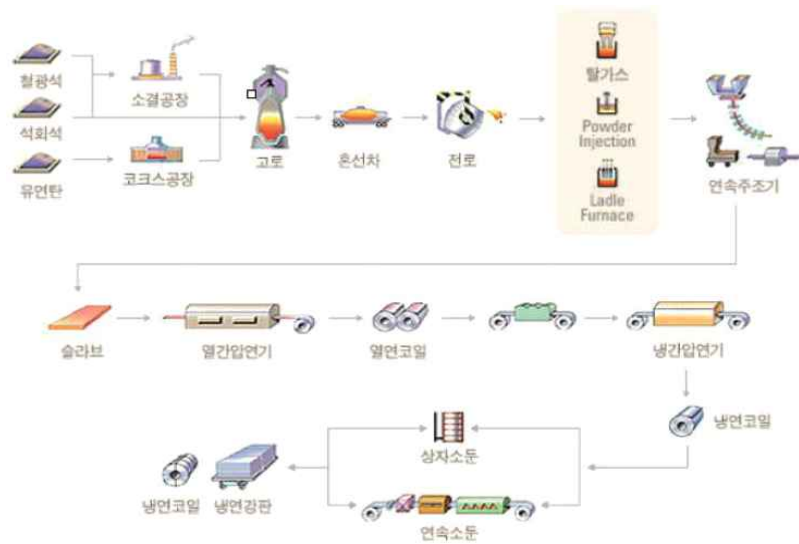
\*출처: ㈜포스코

## ■ 냉연강판(CR)의 제조공정

냉연강판은 열연코일 표면에 생성된 녹을 산세공정에서 염산이나 황산으로 제거하고, 압연롤로 얇게 압연한 다음, 소둔(ANNEALING) 처리하여 고객이 원하는 수준의 두께와 기계적 성질을 구현한 강판이다. 표면이 미려하고 평활할 뿐 아니라 가공성도 우수하여 자동차, 가전제품, 가구 등의 분야에서 기초 소재로 사용된다.

아연, 주석, 크롬 도금 등의 도금용 원판으로도 이용되며, 3.0mm 이하의 박판 형태의 제품이 많고 열연강판에 비해 부가가치가 높은 편이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냉연강판은 제품의 특징에 따라 일반용, 가공용, 심 가공용으로 구분되며, 탄소(C), 망간(Mn), 인(P), 황(S) 등의 원소를 사용 목적에 따라 일정 수준 첨가하여 생산된다. 일반용은 굽힘, 성형 및 경 가공, 용접이 필요한 드럼, 가구 등에 적용되고, 가공용은 가전제품 외장재 등 가공성이 요구되는 제품에 적용되며 심 가공용은 제품 프레임 중에서도 심 가공이 요구되는 제품에 한하여 적용된다.

[그림 12] 냉연강판의 제조 공정도



\*출처: (주)포스코

냉연강판의 제조공정 중 산세공정은 열연강판을 염산탱크에 통과시켜 냉간압연공정을 진행할 때 표면에 결합을 유발하는 스케일(SCALE)을 제거하는 공정이고, 냉간압연공정은 제품 용도에 맞도록 상온에서 압연을 진행하여 원 제품 대비 40~90%정도로 두께를 줄이는 공정이며, 전해탈지는 냉연강판의 압연유와 오염물을 제거하는 공정이다, 또한, 소둔공정은 냉연강판을 열처리하는 공정으로, 압연 시 강판 내부에 변형된 조직을 제어하고 내부 응력을 완화시켜 물리적인 성질을 제어하는 공정이며, 조질 압연 공정은 소둔공정을 실시한 강판을 1% 가량 압연하여 형상뒤틀림 결함을 방지하고 표면에 미려한 조도를 부여하는 공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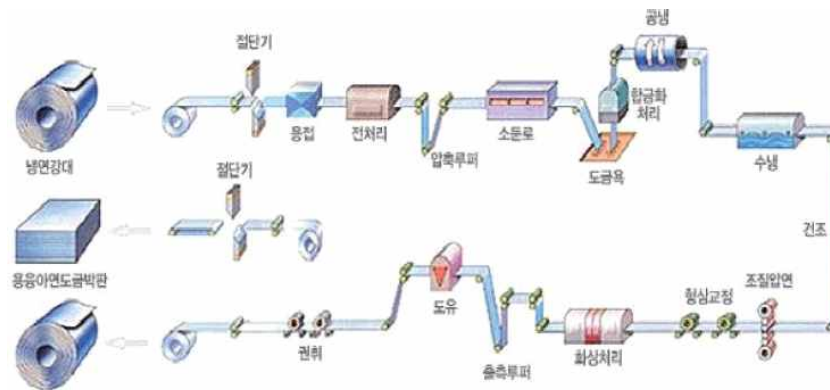
### ■ 산세도유강판(PO), 아연도금강판(GI)의 제조공정

산세유도유강판은 열연강판을 냉연강판 산세공정에서 염산을 이용하여 표면 스케일을 제거한 후 방청유를 도포한 제품으로, 가공성, 용접성, 도장성이 우수하며, 자동차의 시트 프레임, 산업기계 외장재 등에 주로 적용된다. 냉간압연공정 이전 상태의 제품이지만, 후 공정을 거쳐 냉연강판 및 아연도금강판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제조공정은 열연강판 → 산세 → 도유 → 권취 순서로 진행된다.

아연도금강판(ZINC COATED STEEL SHEET)은 아연을 도금한 강판을 총칭하는 것으로, 제조방법에 따라 용융아연도금강판(HDGI, HOT DIPPED GALVANIZED IRON)과 전기아연도금강판(EGI, ELECTROLYTIC GALVANIZED IRON)으로 분류된다.

아연도금강판은 희생양극으로 작용하는 아연도박의 특성 때문에 대기 중 노출 시 산화피막이 형성되어 내식성이 우수하며, 성형성, 용접성, 도장성도 뛰어나 자동차, 건축, 가전제품 등의 내외장재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림 13] 용융아연도금강판의 제조과정



\*출처: (주)포스코

용융아연도금강판은 열연 또는 냉연강판에 아연을 도금하게 되며, 아연이 녹아있는 욕조에 강판을 투입하여 아연피막을 형성시키는 방법으로 생산된다. 아연의 부착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성형가공 시 도금 층의 박리가 잘 일어나지 않아 산업용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제조공정은 전처리 → 소둔 처리 → 도금 → 냉각 → 건조 → 조절 압연 → 교정 및 도유 → 권취 순서로 진행되며, 공정상 도금액 조성, 도금 두께 제어 등의 요소가 핵심적인 기술 노하우에 해당된다.

### ■ 주요기술

동사는 위와 같은 형태로 생산된 다양한 형태의 강판(냉연강판, 산세도유강판, 아연도금강판)은 철강사와 연계된 전국 각지의 서비스센터로 납품되며, 서비스센터에서는 산업별, 용도별로 손쉽게 사용될 수 있도록 1차적으로 기본적인 가공작업을 실시하게 되는 데, 여기서 활용되는 기술이 전단(SHEARING)과 분단(SLITTING) 가공 기술이며, 동사의 핵심 주요기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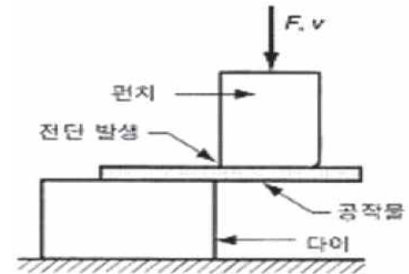
전단 가공은 재료의 절단가공 방법 중 하나로, 재료의 단면과 평행이면서 반대 방향의 힘을 순간적으로 작용시켜 재료를 분리, 절단, 끊어내는 가공법이며, 철강재 절단 업계에서는 흔히 '샤링'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금속 가공 및 성형분야에서 널리 적용되고 있는 기술 중 하나이다.

(주)포스코 1차 협력업체들은 전단 가공라인화로 되어 있으며, 코일의 장착, 이동, 절단, 분류 및 출하 작업이 자동으로 진행되고, 세부적으로는 입고된 코일을 언코일러(UNCOILER)에 장착하고, 코일이 서서히 풀리면서 레벨러(LEVELLER)에 의한 수평맞춤 작업이 진행되며 천천히 라인을 따라 이동되면서 순차적으로 전단된다. 이를 통해, 가공제품이 라인 밖으로 나와 적치되어 출하를 진행하게 된다.

품질과 기술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는 전단면의 버(BURR) 발생 최소화, 치수 정밀도 및 평탄도 확보 등으로, 설비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며, 동사의 경우 레벨러, 전단기, 언코일러 등이 모두 연결 및 자동화되어 있어 치수 정밀도와 평탄도 확보는 물론, 버(BURR)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다.



[그림 14] SHEARING 장비 및 전단 가공 도식도



\*출처: 경남스틸,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그림 15] 웅남 사업장 SHEARING LINE



\*출처: 경남스틸

분단 가공은 철강재의 절단가공 방법 중 하나로, 특정 재료를 가늘고 길게 절단하는 방법이며, 주로 철강재 중 가대의 폭을 절단할 때 사용되는 가공법이다. 광폭형태로 제작된 강대는 고객이 보유한 설비에 따라 바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개별로 쪼개어 폭을 줄이기 위한 공정이기도 하다. 금속뿐만 아니라 종이, 필름, 각종 복합재료의 가공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는 기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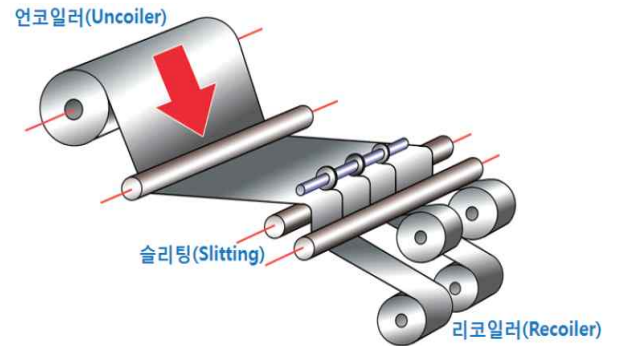
분단 작업을 수행하는 장치를 슬리터라고 하는데, 설비의 규모나 취급 폭 측면에서 다소간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철강업체는 언코일러, 레벨러, 슬리터, 루퍼(LOOPER), 리코일러가 라인화된 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단 가공과 마찬가지로 코일의 장착, 이동, 절단, 분류 작업을 자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전단 라인과는 달리 분단 라인에서는 루퍼 장치가 있는데, 루퍼는 권취 이전 당김 현상을 방지하여 폭이 절단된 강판 각각에 대해 길이 편차와 이동속도 편차를 제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세부적으로는 입고된 코일을 언코일러에 장착하고, 코일이 풀리면서 롤러에 의한 이동(레벨러가 있는 경우는 수평맞춤도 함께 진행한다.)하여 회전커터에 의한 절단을 진행하며, 루퍼로 고정, 리코일러(RECOILER)에 의하여 권취를 진행하여 출하한다.



품질과 기술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는 전단과 마찬가지로 전단면의 버(BURR) 발생 최소화, 치수 정밀도 확보 등이며, 모두 설비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고, 동사의 경우 웅남 사업장과 광양 사업장에서 최대 1,850mm의 폭을 갖는 강판을 연간 약 75만 톤 연속 절단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다.

[그림 16] SLITTING 장비 및 분단 가공 도식도



\*출처: 경남스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그림 17] 광양 1, 2 사업장 설비라인



\*출처: 경남스틸

### ■ 기술개발 현황 및 생산능력

동사는 자체적으로 기술인력 8명을 운용하고 있으며, 생산성 향상, 납기 충족을 위한 수시적인 공정개선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생산총괄책임자는 주력제품인 산세도유강판, 냉연강판, 아연도금강판의 가공과 관련된 공정관리, 설비관리는 물론, 원자재의 입고, 생산현황, 재고현황 등을 수시로 파악하고 있으며, 생산이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최적화된 조업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유관기관 대응 업무를 비롯하여 생산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총괄하면서 거래처에 대한 납기가 준수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동사의 생산인력은 철강 소재의 기계적 특성, 물리적 특성, 화학적 특성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고, 기반 기술인 전단, 분단 가공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수준이며, 축적된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요처가 요구하는 조건과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생산설비의 경우,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웅남동, 전남 광양시 태인동에 SHEARING LINE, MINI SHEARING LINE, SLITTER 등 라인화된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냉연강판과 열연강판 전 사이즈를 처리할 수 있는 생산설비와 숙련된 기술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 IV. 재무분석

###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실적개선 지연

전방산업인 자동차, 가전, 조선, 건설업 등의 수요부진 및 코로나19(COVID-19) 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 지속으로 2020년 실적 및 수익성 개선 지연되고 있다.

#### ■ 철광석 시세와 (주)포스코의 가격정책에 따른 매출변동성 내재

동사는 종합철강업체로 (주)포스코의 스틸가공센터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주로 가전업체 및 자동차, 조선, 건설 업체 등을 주요 수요처로 고객사와의 긴밀한 협업관계를 통해 거래안정성이 우수한 다수의 고정거래처 다년간 확보하고 있다.

동사의 사업부문은 철강재 가공제품 제조, 철강재 유통 및 판매, 철강재 절단가공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철강 산업은 기초 원자재 공급 산업으로 국내외 경기 변동에 따라 그 생산규모 및 가격이 변동되는 전방위 산업으로 철광석 시세와 (주)포스코의 가격정책에 따른 열연강판의 매입가격에 따라 매출변동성 내재하고 있는 가운데 2019년 매출실적은 산세코일, 열연코일 및 냉연상품매출 호조로 전년도 대비 약 15.7% 매출 신장하였다.

한편 최근 수개년 꾸준한 흑자기조 견지하고 있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COVID-19) 등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생산성 감소로 실적개선 지연되고 있다.

[표 6] 사업품목별 매출 실적 [K-IFRS 개별기준]

(단위: 백만 원)

사업 부문	매출 유형	품목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Q
철강 산업	제품	냉연강판	60,400	56,986	58,144	23,090
		전기아연도금강판	7,278	6,620	6,403	2,488
		산세코일	80,772	82,363	87,328	31,856
		용융아연도금강판	14,909	19,514	16,613	7,868
		열연아연도금강판	9,574	9,533	8,729	3,998
		합금화아연도금강판	11,593	8,955	7,877	4,242
		용융알루미늄아연도금강판	413	144	331	34
		열연코일	8,661	7,191	12,829	4,688
		고내식합금도금강판	3,182	5,119	3,488	1,049
			제품합계	196,782	196,425	201,742
	상품	냉연기타	88,014	75,981	114,028	47,967
	기타	임가공 외	2,184	2,541	2,441	1,064
합계			286,980	274,947	318,211	128,344

\*출처 : 경남스틸 연도별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2020년 6월)

동사 2019년도 결산서 기준 매출실적은 냉연제품 가격 인상 등으로 2018년 매출액 대비 약 15.7% 매출신장 시현하였으나, 마진율이 낮은 상품매출 증가 등으로 영업이익 및 순이익은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한편 동사 2020년 2Q기준 매출실적은 약 128,344백만 원(전년도 동기 162,417백만 원) 기록하여 전년도 동기 대비 약 20.98% 감소하였는바 이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전방산업인 자동차 및 가전산업의 부진, 국내 건설투자 위축, 조선 건조량 감소 등으로 냉연판재류 수요부진으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원가 및 판매비 부담 확대로 2020년도 2Q기준 영업이익 약 1,606백만 원(전년도 동기 3,713백만 원), 당기순이익 약 1,529백만 원(전년도 동기 3,184백만 원) 기록하여 수익성 또한 전년도 동기 대비 축소되었으며, 중국건설 수요 둔화 등으로 중국내 철강재고가 급증하고 있고, 이로 인해 국내에 중국발 저가 철강재가 유입될 우려가 있어, 당분간 매출성장 및 수익성 향상은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8]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분석 [K-IFRS 개별기준]



\*출처 : 경남스틸 연도별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2020년 6월)

[표 7] 주요 재무현황 [K-IFRS 개별기준]

(단위: 백만 원)

구분	2018년	2019년	2019년 2Q	2020년 2Q
매출액	274,947	318,211	162,417	128,344
영업이익	6,259	6,061	3,713	1,606
당기순이익	5,376	4,638	3,184	1,529
매출액증가율(%)	-4.19	15.74	17.76	-20.98
영업이익률(%)	2.28	1.90	2.29	1.25
순이익률(%)	1.96	1.46	1.96	1.19
부채비율(%)	67.72	62.79	62.79	54.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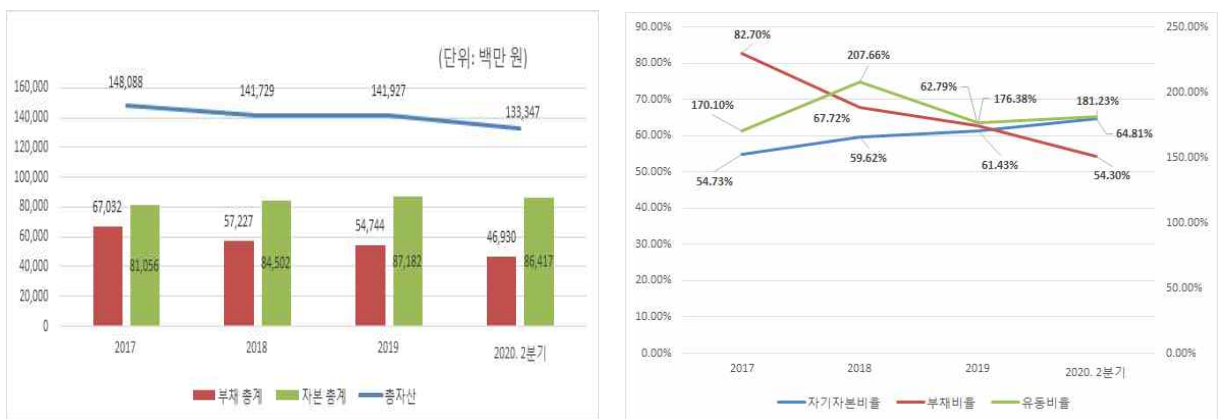
\*출처 : 경남스틸 연도별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2020년 6월)

■ 풍부한 내부유보자금 등 안정적인 재무구조 견지

동사 2019년도 결산 기준 자산총계는 141,926백만 원으로 전년도(141,729백만 원) 대비 강보합수준이고, 차입금 일부상환 등을 통해 부채총계는 54,744백만 원으로 전년도(57,227백만 원) 대비 약 4.93% 감소하였으며, 이자보상배수는 8.52배(전년도 7.29배)로 향상 되었다.

또한 자기자본 87,182백만 원으로 전년도(84,501백만 원) 대비 증가하여 자기자본비율 61.43%이고, 현금/단기금융상품 6,091백만 원 포함 유동자산은 90,436백만 원 보유하고 있으며, 부채비율 62.79%, 차입금의존도 12.67%로 안정적인 재무구조 견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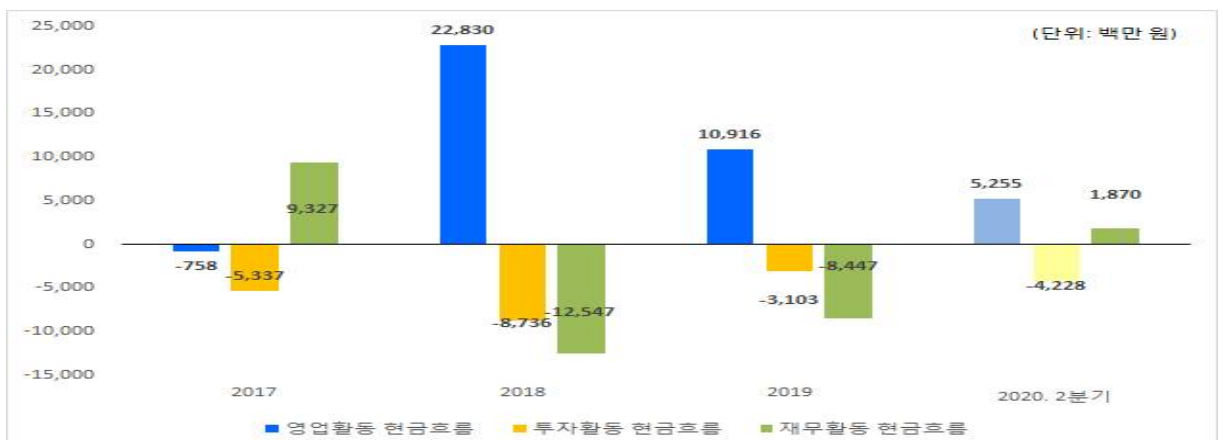
[그림 19] 요약 재무상태표 분석 [K-IFRS 개별기준]



\*출처 : 경남스틸 연도별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2020년 6월)

동사 2019년도 결산기준 매출규모는 확대되었으나, 저마진 상품매출 확대 및 원가부담 심화 등으로 이익규모 축소되어 현금영업이익은 12,402백만 원(전년도 23,325백만 원)으로 축소되었다. 다만 운전 자본부담 완화로 최근 결산 3기 영업활동 조달현금 정(+)의 상황 지속되고 있고, 차입금일부상환으로 총차입금영업자금비율이 39.28%(전년도 30.91%)로 향상되는 등 전반적인 현금창출능력은 양호한 수준 견지하고 있다.

[그림 20] 현금흐름성 분석 [K-IFRS 개별기준]



\*출처 : 경남스틸 연도별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2020년 6월)



## V. 주요 변동사항 및 향후 전망

### 철강 산업 시장의 변동에 대비한 기술역량 강화 및 정보 활용 활성화

동사는 (주)포스코와 원 소재 임가공 계약을 체결하고, 추가 장비 구입, 공장 증축 등 안정적인 수익성 확보를 위해 역량에 집중하고 있고, 고객사와 더욱더 긴밀히 협업하고 최상의 품질과 최상의 서비스로 고객사와 함께 대내외적으로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매출 상승세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 ■ 추가 장비 구입, 공장 증축을 통한 기술역량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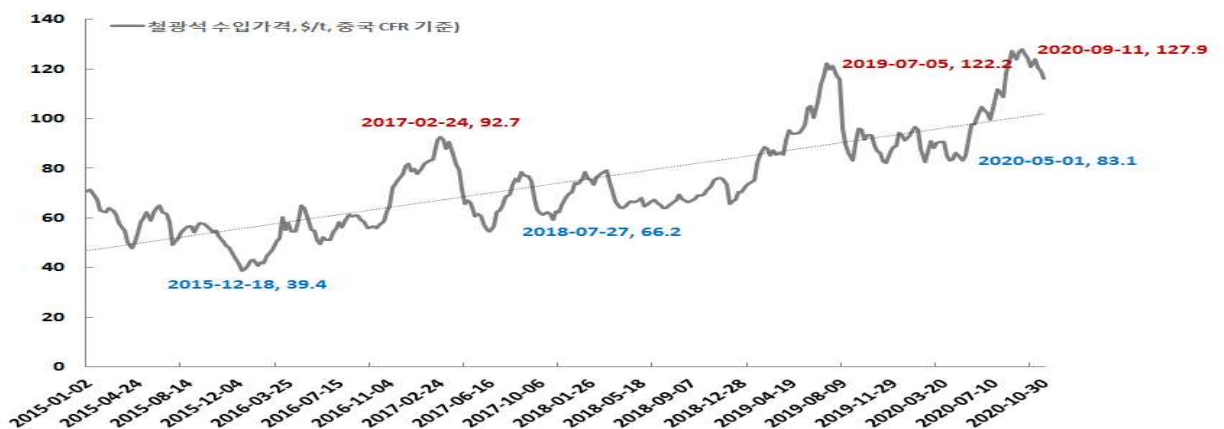
동사는 최근 광양 제2공장 부지에 61억 원을 추가 투자하여 3,534㎡ 규모의 공장을 증축하고 있고, 공구와 기구 66백만 원, 기계장치 90백만 원 추가 구입을 통한 기술역량을 강화하였으며, 2020년 반기 기준 가동가능능력대비실제가동량에 따른 평균가동률은 38.71%(2019년도 기준 34.18%)로 전년 대비 상향한 가동능력을 보이고 있다.

또한, 고객사와 긴밀한 업무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고객사 전담제를 운영하여 각 담당자가 고객사별 수요량을 맞춘 생산지시서를 운용하고 있으며, 고객사의 일정에 맞는 긴급 발주 분을 최우선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기술역량 및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 ■ 철광석 수입가격은 최근 5년간 상승 추세

동사의 사업실적에서 중요한 요소는 외부요인에 해당되는 철광석 시세와 (주)포스코의 가격정책에 따른 열연강판의 매입가격이며, 2가지 요인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철광석 가격(중국 CFR 기준)은 주별로 고시되고 있는데, 고로를 보유한 (주)포스코와 현대체철(주)는 철광석 수입가격의 등락에 따라 열연강판의 가격을 인상 또는 인하 적용하고 있다. 특히, 수요와 가격 측면에서 세계적인 경기변동에 따른 수요 증감과 철광석의 생산량, 철강재 재고량의 변동 등에 따라 가격이 수시로 변동되고 있어 과거와 현재 및 미래 시세 예측자료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그림 21] 철광석 시세 추이



\*출처: 한국광물자원공사 철광석 수입가격 자료 한국기업데이터 재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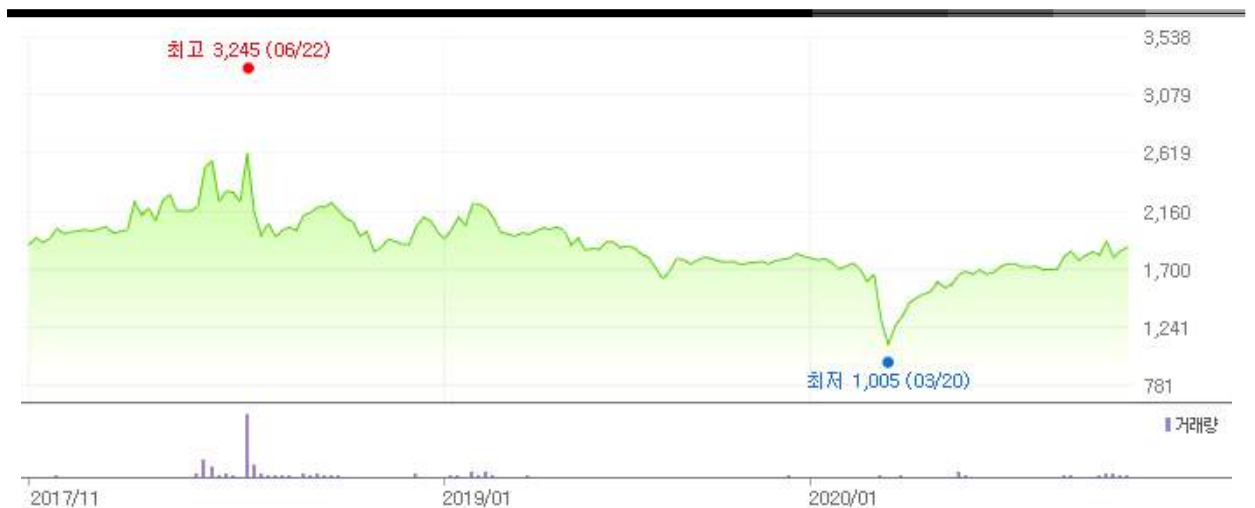
철광석 수입가격은 2015년 1월 첫째 주 70.6\$/t에서 2015년 12월 39.4\$/t까지 하락하였다가 2016년에는 회복세, 2017년에는 상승세를 보였다. 2018년은 다소 간 침체 상태를 나타내다가 11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2019년 7월에는 122.2\$/t를 기록하였으며, 8월부터 다시 급락하였으나, 코로나19(COVID-19)가 약간 소강상태를 보인 2020년 5월부터는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9월에는 수집 기간 내 최고점인 127.9\$/t를 기록하였으나, 현재는 소폭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다.

한편, 동사가 ㈜포스코 등으로부터 매입하는 열연강판 가격은 2015년에 크게 감소하였다가 2018년에 톤당 721천 원까지 상승하였으며, 2020년 반기는 톤당 647천 원으로 다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COVID-19)에 따른 세계 각국의 봉쇄조치 해제 및 경제 정상화 등에 힘입어 2021년에는 철강 수요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보여 향후 동사의 매출 실적 증가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 ■ 증권사 투자 의견

작성기관	투자 의견	목표주가	작성일
	해당사항 없음		

### ■ 시장 정보(주가 및 거래량)



\*출처: 네이버증권(2020.11.17.)